



지난 2009년 가수 인순이와 함께 희망 콘서트에 참가한 섬드리합창단원들.

섬마을 천사들의 화음 일본 감니다

‘할머니·할아버지, 저희들이 노래로 위로해 드릴게요.’
섬마을 아이들이 재일동포 노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신안군 섬마을 어린이들로 구성된 ‘섬드리합창단’(단장 박인재)이 재일동포 노인요양시설인 일본 ‘고향의 집’에서 뮤지컬 공연을 갖는다.
섬드리합창단은 지난 2002년 열린 광주KBS 섬어린이 동요대회 입상자들의 모임에서 출발

초 조출한 자축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다 좀 더 의미있는 공연을 갖으면 어떻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일본 공연을 결정했다.
아이들이 찾게 될 ‘고향의 집’은 우리 지역과 인연이 깊다. ‘고향의 집’은 목포 공생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 고(故) 윤학자 여사의 아들인 윤기 송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이 윤기씨가 설립한 곳이다.
윤씨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 노인들

운 회장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을 써내려간 책 ‘어머니는 바보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고, 음악을 만든 작품이다. 아이들과 함께 연극인 김인숙·조승연씨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요즘 매주 금요일 1~2시간씩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 토요일까지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단원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다혜(자은중 2년)양은 “이번에 저희들의 공연을 보시고, 할머니들이 새해에는 한 살씩 덜 잡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년을 거쳐오는 동안 합창단을 거쳐온 단원은 약 60명 정도. 매년 두차례 단원들을 모집했다. 1기생이었던 조아라양은 현재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등 합창단을 통해 꿈을 이뤄가는 이들도 있다.
섬드리합창단은 요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단원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급속히 줄어들며, 방과 후 학교 등이 운영되면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와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10년을 맞아 섬드리합창단을 군립 합창단으로 만드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는 중이다.

박인재 단장은 “아이들에게도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아 일본 공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연말을 쓸쓸하게 보내실 노인들이 고국에서 온, 꼭 손주같은 아이들 공연을 보고 행복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섬드리합창단’ 내달 9~10일 노인요양원서 공연
창단 10주년 기념 故 윤학자 여사의 삶 뮤지컬로
연극인 김인숙씨 등 참여 동포 어르신들 향수 위로

한 단체로 압해도, 증도, 도초도 등 신안 지역 섬에 살고 있는 14명의 어린이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섬드리합창단은 매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텔런트 강부자씨와 서울에서 뮤지컬 ‘섬마을 선생님’을 공연하기도 했고 미국 공연도 다녀왔다. 또 텔런트 사미자씨와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옮긴 ‘섬집 아기의 노래’라는 뮤지컬로 압해도, 압태도 등 섬순회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은 섬드리합창단은 당

과 일본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사카와 교토, 고베에 ‘고향의 집’을 열었고 교토에는 노인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전하기 위해 한국문화홀도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윤학자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 아이들의 공연은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출범기 협회(회장 최수열), 신안군의 후원을 받아 12월 9일과 10일 각각 교토·오사카 ‘고향의 집’에서 아이들이 공연하는 작품은 윤학자 여사의 삶을 소재로 한 뮤지컬 ‘천사 어머니’.

광주박물관 年 관람 첫 50만 돌파

굵직한 특별전 다양
전년보다 37% 늘어
내달 24일부터 기념전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4일 선보였던 외규장각 의궤전.

올해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78년 개관한 광주박물관의 연중 관람객 50만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9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사는 서현경씨와 이현수 군이 박물관을 찾아 올해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중 관람객 36만9886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외규장각 의궤’, ‘절강성의 보물’, ‘강진전’ 등 다양한 기획특별전, 토요일 야간연장개장, 음악회, 영화감상 등 외진 장소에 위치했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관람객 증가의 배경이 됐다.

광주박물관 관람객은 1978년 12월 개관한 이래 34년 동안 한 차례도 50만명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1년 48만8417명이 찾았던 게 가장 많았다. 1988년엔 10만9000명까지 추락하는 등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연중 관람객이 30만명을 웃돌았고 올해 50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의 문화예술·박물관 분야 월간지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가 연중 관람객 50만명 이상인 박물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세계 100대 박물관’에도 광주박물관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박물관은 50만명 관람객 돌파를 기념하는 전시로 ‘신창동유적 - 2000년 전의 타임캡슐’전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여는 전시는 신창동 유적의 사적 지정 20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그동안의 발굴·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전 신창동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복원해 보여줄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영수 70년 작품인생 회고 시립미술관 내달 4일부터

백영수 70년 작품인생 회고 시립미술관 내달 4일부터

작품에 다정하고 따뜻함이 가득하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모자(母子)는 널리 알려진 대표작.
백영수씨가 다음달 4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연다.

백씨는 1940~1950년대 활동한 ‘신사실과’동인(김환기·유영국·백영수·이중섭·이규상·장욱진) 중 유일 한 생존 화가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산 증인으로 불린다. 신사실과는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의 후기인상파적 화풍을 뛰어넘기 위해 이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번 전시는 그의 70년 작품 세계를 총 망라한다.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대표작인 ‘모자(母子)’ 시리즈를 비롯, 1940~50년대 초기 작품, 2000년대 ‘여백’ 시리즈, 등 105

점이 선을 보인다. 또 당시 전시 리플렛, 방명록, 백씨의 삽화가 들어간 각종 도서 100점도 함께 전시된다.
초가집과 새, 개, 나무, 정자 등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그의 작품 세계를 한번에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해 영구 귀국한 뒤 만든 신작 30점도 만나볼 수 있다.

백씨는 수원에서 태어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 1945년 귀국, 목포고등학교 미술교사, 조선대 미술대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 1977년 프랑스로 건너가 수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을 열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영구 귀국했다. 문의 062-613-714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족’

‘새단장’ 총장서림 오늘 개장

지난 8월 문을 담은 지역 대표 향토 서점인 총장서림이 30일 재개장한다. 총장서림은 “기존 매장(지하 1층·지상 1~2층) 지하에 문구 코너를 갖춰 재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대로 내준 1~2층 매장 오픈에 맞춰 문을 연 것으로, 매장 규모는 230평 수준이다. 우선 2만여권을 갖춰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점차 취급 도서를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다만, 애초 3층에 마련키로 했던 인문·사회·기술과학 등 전문 서적 코너는 일반 서점 운영 활성화 등의 추이를 보면서 오픈키로 했다.
총장서림측은 폐업 신고를 앞두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지역민들의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재개장을 결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약단

무궁화호 무박 2일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 김유정문학촌 · 소양댐 기차여행

남이섬은 “겨울연가”, “우리결혼했어요”등등 여러 방송 촬영지로 내외국인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며, 매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유정생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생가로 외양간, 디딜방앗간, 전시관 등으로 문화공간이다. 또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동양최대의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을 관광하게 되며, 춘천의 유명한 음식으로 알려진 춘천 먹거리등등 관광하게 된다.

출발일 12월 24일 23시50분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70,000원
 소인 55,000원
포함사항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남이섬입장료, 여행자보험

소파 식탁 대전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금일 입점 신상품 120 종류

www.hong79.com(홍친구닷컴)